경주 미탄사지 석탑 보물된다

문화재청, 11월 10일 지정예고


보물로 지정예고된 경주 미탄사지 3층 석탑.

신라 석탑 초기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경주 미탄사지 3층 석탑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주 미탄사지 3층 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1월 10일 밝혔다.

높이 6.12m의 총 35매의 부재로 구성된 미탄사지 3층 석탑은 1980년 이전까지는 기단부와 탑신부(塔身部, 몸돌)의 일부 부재가 소실된 채 방치되어 있다가 1980년에 남은 부재들을 활용해 복원됐다. 소실된 부재는 새 부재를 치석(治石, 돌을 다듬음)하여 조립했다.

파손되고 결손된 부재는 새 재료로 보강 · 보충하여 구 재료와의 이질감은 있지만, 신라석탑 기초부의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한 점과 그 형태가 정연하고 적절한 비례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크다.

특히, 일반적인 석탑의 판축(板築)기법과 달리 잡석(雜石)과 진흙을 다져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한 단이 완성될 때마다 굳히면서 쌓아나가는 기초부의 판축 축조방식을 사용한 점이나 기단부 적심(積心) 내에서 지진구(地鎭具)가 출토된 점 등에 대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미탄사는 황룡사 남쪽에 위치한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으며, 고려 후기까지 사격이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탄사지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요소를 지닌 석탑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경주 미탄사지 3층 석탑'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 소장학자 지원 하영수 · 김영석 교수

지원사업회 선정 결과 발표… 16일 시상식


하영수 교수


김영석 교수

제13회 불교 소장학자 지원사업에 하영수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박사 논문 부문)와 김영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초빙교수(번역 부문)가 각각 선정됐다.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11월 8일 올해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박사 논문 부문에 선정된 하 교수는 '법화경의 삼보구조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로, 번역 부문에 선정된 김 교수는 〈이부종륜론술기〉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 교수의 박사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법화경〉을 기존의 성립사적 연구와 달리 완성된 텍스트로 보면서 거기에 제시된 불법승 삼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시도했다"며 "무한히 지속되는 보살행의 실천자로서의 부처상을 찾아내고 있는데, 연구 시각이 참신하고 논의 방법에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의 번역물에 대해서는 "〈이부종륜론〉과 관련된 티베트 불교의 문헌들은 인도불교 교단사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면서 "규기의 〈이부종륜론술기〉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간과돼 왔다"고 텍스트의 중요성을 상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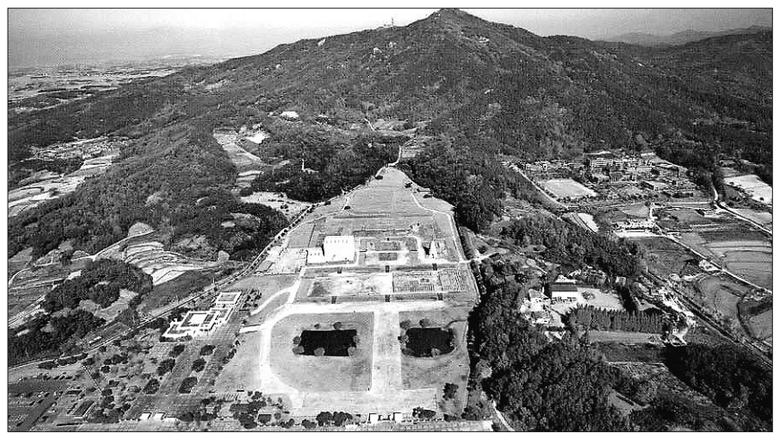
불교 소장학자 지원사업은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가 불교학 진흥을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올해 지원사업 시상식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강남포교원에서 열리며, 논문과 번역본은 향후 총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미륵사지 복원, '역사 연속성 회복' 중점"

국립문화재硏, '미륵사지 복원정비 방안' 심포지엄


발굴과 보존 연구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 전경. 2025년까지 단계별 연구를 통해 종합적 보존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발굴과 보존 연구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복원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익산시는 11월 4일 전북 익산시 모현도서관에서 '익산 미륵사지 유구 보존과 복원정비 방안'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는 백제 무왕 때 창건되어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던 사찰이다. 최초인 1966년 이후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발굴조사로 전체적인 규모와 가람배치의 특징이 밝혀졌다.

또한, 2009년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조사 과정에서 석탑 1층 심주석에서 발견된 사리장엄(舍利莊嚴)을 통해 639년이라는 창건연대가 밝혀진 바 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 미륵사지 복원정비 연구 현황과 계획 등이 포괄적으로 제시됐다. 한주성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은 '미륵사지 복원정비 계획'을 통해 전반적 복원 방안과 연구 계획 등을 제시했다.

한 연구관은 미륵사지 복원의 목적은 그간 단절됐던 미륵사지의 '역사적 연속성 회복'임을 전제하며 "미륵사지의 역사 환경 보존과 지역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관람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하나의 미륵사지 활용 컨셉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획 중인 미륵사지 복원 구역은 △핵심구역 △완충구역 △유보구역 △생태보전구역 △관광지구로 나뉜다. 핵심구역인 미륵사지영역은 미륵사지 핵심 유적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완충구역은 식생 및 녹지 보전, 전시 · 관리 · 체험 등의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역은 다시 영역으로 세부화해 미륵사지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연구관은 "현재 광장과 연지, 사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며 "광장은 지역을 배려한 공간이며, 연지는 미륵사지 및 금마의 역사와 설화를 주제로 한 역사 공원, 사지 영역은 정비된 유구를 전시하는 야외박물관의 컨셉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미륵사지 핵심 유적 보호하며
녹지생태 보전 · 관람 편의 도모
2025년까지 중장기 연구 추진
사지 유구 보존 방안 우선돼야

미륵사지의 종합적 복원을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도 발표됐다. 연구는 기본 구상과 기본 연구 · 심화 연구의 3단계로 이뤄지며 현재는 1차 기본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 구상은 2008~2010년까지 진행됐으며, 1차 기본 연구는 2013~2016년까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미륵사지의 보존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유구 보존과 관람환경 개선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차 기본연구는 현황 유구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기법과 노출 유구의 근본적 보존 대책들이 연구되며 2017~2020년까지 4년 동안 이뤄진다. 심화 연구 단계는 2021~2025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며 이를 통해 미륵사지의 종합정비 계획이 수립된다.

한 연구관은 "심화 단계까지 연구가 이뤄지면 그간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미륵사지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뿐만 아닌 다양한 연구 성과를 집약해 종합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미륵사지 보존과 더불어 유구 보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현용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는 "미륵사지는 1966년 최초 발굴조사 이후 장기간의 발굴조사와 정비 사업을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정리됐다"면서 "하지만 거의 모든 유구들이 외부환경에 직접 노출돼 보호에 한계가 있다. 적극적인 유구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지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은 "1994년 미륵사지 발굴조사 이후 정비된 건물지에서 내부 토사의 유실 및 잔디 번식으로 인한 유구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미륵사지 건물지의 잔존 부재에 대한 보존 정비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시적 · 입체적 방법의 유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늦가을, '성보의 아름다움'에 빠져보세요

불교학계, 불교 문화재 조명 세미나 잇달아

가을이 저물어가는 시기, 불교 문화재에 담긴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들이 잇달아 열린다.

조계종 관촉사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함께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관촉사 은진미륵불 1010주년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충남 관촉사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논산 관촉사 석불의 시기별 존명(尊名) 인식의 변천(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논산 관촉사 사적비 연구(김정원(재)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논산 관촉사 근대 이미지 연구(홍은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부장) 등이 발표된다.

불교미술사학회(회장 지준)는 11월 19일 오전 10시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제28회 학술대회와 제1회 영축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양승은 동아대 석당박물관 학예연구원이 '경주 남산 불곡마애좌상의 도상연구'를, 진정환 박물관정책과 학예연구관이 '실상사 승탑 조영으로 본 실상산문과 정권'을, 박현서 한백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원이 '지리산 지역 통일신라 석탑 연구'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미타신앙과 도상의 전개를 조명하는 국제 학술대회도 열린다. 동양미술사학회(회장 최성은)는 11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서방극락정토를 향한 염원-동아시아 아미타신앙과 도상의 전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은진미륵 1010주년 학술제부터
아미타 도상 분석 등 주제 '다채'

이날 학술대회는 김영미 이화여대 교수가 '신라의 아미타신앙'에 대한 기조강연으로 시작한다. 주요 발제로는 이분희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팀장이 '여말선초 석탑봉안 아미타불상 연구'를, 나가노 사토시 일본 류코쿠대(龍谷大)강사가 '일본상대(上代)의 아미타여래상과 정토신앙-호류지 전래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가 '흥천사 극락구품도에 투영된 극락'을, 리징지에(李靜傑) 중국 칭화대(淸華大)교수가 '명대 아미타불 48원과 서방극락세계도상'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 최선아 명지대 교수, 박혜원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송은석 동국대 교수, 김진숙 금강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밖에도 불교의 역사와 교리를 조명하는 세미나들도 개최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11월 16일 동국대 불교학술원 2층 강의실에서 '조선시대의 국가와 불교'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은 오는 12월 2일 100주년기념관에서 '〈번역명의대집(飜譯名義大集)〉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국제학회를 개최한다.

또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11월 19일 오전10시 30분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마음과 의식-알라야식의 이해'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